

	명칭(한글)	김해명월사사적비					
	명칭(한자)	金海明月寺事蹟碑					
문화재지정	비지정						
시대/연대	시대	조선		연대	1708년(숙종34년)		
유형/재질	유형	비문		재질	돌		
크기	미상						
출토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소재지	(한국)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한국)-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한국)-						
서체	해서(楷書)						
제작자	찬자	증원(證元)	서자	수한(守閑)	각자	미상	
개관	1708년 지금의 김해군 녹산면 지사리(부산시 강서구 지사동으로 편입)에 있는 명월사에 세워진 사적비이다. 승려 증원(證元)이 글을 짓고 수한(守閑)이 글을 썼다. 명월사 사적비에는 가락국의 수로왕과 왕비에 관련된 전승이 있다. 수로왕이 도읍을 세운 뒤 국호를 가락(駕洛)이라 하고 바다에서 오는 왕비를 이곳 명월산에서 맞이하고, 그 뒤 신국사(新國寺) 진국사(鎭國寺) 흥국사(興國寺)를 창건하였다. 명월사는 이 중 흥국사와 관련이 있다. 명월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는데 1618년(광해군 10년)에 중건하였다. 훗날 1708년에 다시 중건할 때 무너진 담 아래서 '建元元年甲申三月藍色'이라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고, 장유화상(長遊和尚)이 인도에서 불법을 가지고 수로왕께 왔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건원원년(建元元年)은 서기 144년으로 수로왕 재위 103년에 해당하는 연대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명월사의 유래는 가락국 건국 초기이며, 우리나라 불교의 기원이 가락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단행본)강평원,2004,『아리랑시원지를찾아서』,청어 (단행본)이이화,2002,『역사속의한국불교』,역사비평사						

	<p>(단행본)임혜봉,2001,『불교사100장면』,가람기획</p> <p>논문</p> <p>(논문)김영화,1998,「가야불교의수용에대한비판적고찰」,경남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p> <p>(논문)김병모,1997,「김수로왕연구」,漢陽大學校民族學研究所</p>
관련금석문	가락국수로왕릉비(駕洛國首露王陵碑)



판독	
판독자	김동석

金海明月寺事蹟碑

山在府南四十里而寺居峯回林密處乃首露王所建也漢建武十八年創建都盆城國號駕洛後七年王與許后相遇於是山高嶠下設幔殿迎后翌日同輦還宮后解所着綾袴贅于山靈王感其靈異以明月名山後命建寺三所以興鎮新三字弁于國而扁之永爲邦家祝釐之所曰新國爲世子建在山西崖曰鎮國爲后所設在山東谷曰興國爲王自爲在山中卽是寺至今稱三願堂而二寺只爲遺址山下有夫人塘及主浦后乃西土國王女航海而來維舟於此自餘異蹟甚多而今略之本寺在高嶠下乾坐洞壑清幽泉石爽明峯巒蒼蔚眞人間別區也往在壬辰毀於兵火萬曆戊午有一宿德重扶建開土相繼立功諸殿及像幀乃衍一元德莊宗惠尙眞應俊諸師所成今年法堂階砌又成取石於昆陝地舟棹運遠又得神助云重修時又得一瓦額垣下背有建康元年甲申三月藍色等字且長遊和尚自西域奉佛法而來王之重道崇佛亦可驗矣噫否泰交作盛衰相遷後來之士勤而葺之豈懼寺之不綿遠哉銘曰

寶山南起 近接扶桑 天降神人 化此一方 西泛東邁 來泛大洋 王曰設幔 惟彼親迎 追思嘉耦 感及山靈 爲建招提 護我禪門 超然淨界 與世迥分 喬僧宣化 重譯來傳 宸情問道 崇彼福田 神祇擁護 佛界萬年

崇禎 丙子 後七十二年

太虛之後徒 僧 證元 撰 守閑 書

해석	
해석자	김동석

산은 김해부 남쪽 40여리에 있으며, 절은 봉우리가 돌아 숲이 뺏뺏한 곳이며, 곧 수로왕이 세운 것이다. 한나라 건무(建武) 18년(42년)에 분성(盆城)에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가락’이라 하였다. 그 뒤 7년에 왕과 허후(許后)가 이 산에서 서로 만나 높은 언덕 아래에 만전을 세워 왕후를 맞이했다. 다음날 연(輦)을 함께 타고 궁전으로 돌아오다가 왕후가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을 드렸다. 왕께서도 그 신령함을 감동하여 산 이름을 ‘명월산(明月山)’이라 한 것이다.

뒤에 세 절을 지어 흥국사(興國寺), 진국사(鎭國寺), 신국사(新國寺)라 하여 ‘국’자를 썼으니, 영원히 나라의 융성을 비는 장소가 되었다. 신국사는 세자를 위하여 세운 것으로 산 서쪽 언덕에 있다. 진국사는 왕후를 위해 세운 것으로 산 동쪽 골짜기에 있다. 흥국사는 왕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산 중앙에 있으니 곧 이 절이다. 지금 ‘삼원당(三願堂)’이라 칭한다. 두 절은 터만 남았다.

산 아래에 부인당(夫人塘)과 옥포가 있다. 왕후는 서역국(인도)의 왕녀로서 바다를 저어 왔으며, 여기에 배를 매었으므로 저절로 기이한 행적이 많았으나 지금 생략한다.

이 절이 본래 높은 언덕 아래 동북쪽을 등지고 있으니, 골짜기가 맑고 깊숙하며 냇물과 바위가 산뜻하게 맑고 봉우리에 숲이 울창하므로 참으로 별세계였다. 지난 임진왜란에 전란으로 헐어지고 만력(萬曆) 무오년(1618년)에 한 노승이 다시 불들어 세우고 선비들이 서로 이어 세우고 여러 전각과 불상 영정을 갖췄으니 곧 연일(衍一), 원덕(元德), 장종(莊宗), 혜상(惠尙), 진응(眞應) 등 여러 훌륭한 법사들이 이룬 것이다. 금년에 법당과 돌계단이 또 이루어졌으니 돌은 중국 곤섬(昆陝)에서 배로 멀리 운반한 것으로 또한 신의 도움을 얻었다 한다. 이 절을 다시 세울 때에 무너진 담 아래에서 기왓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뒤쪽에 ‘건강(建康) 원년 갑신(144년) 3월 납색’ 등의 글자가 있고, 또 장유화상(長遊和尚)이 서역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왔으니, 수로왕이 불교를 숭상했음을 증험할 수 있다. 아아! 국운의 성쇠는 서로 바뀌는 것이니, 후세의 인사들이 부지런히 개수하면 절이 영구보존 되지 않을까 어찌 두려우랴!

명은 다음과 같다.

보배로운 산이 남방에 일어나,
가까이 동해에 잇닿았다.
하늘이 신인을 내려
이 땅을 교화하니,
서쪽에서 배 타고 동쪽으로
머나먼 바다를 거쳐 오셨도다.
왕께서 만전 베푸사,
오직 몸소 맞이하셨네.
왕후를 미루어 생각하니
감동이 산신령께 미치네.
사찰을 세워서

불법을 보호하시니,
초연히 맑은 법계로다.
세속과 멀리 떨어져
큰 스님 교화 베푸시사
인도 말씀 다시 번역해 전하니,
왕의 마음 불도를 물으셨다.
높아라, 저 복된 터전을
신께서 옹호하시어
법계가 만년을 이으소서.

승정(崇禎) 병자 후 72년(1708년)에 태허(太虛)의 제자 승 증원(證元)이 짓고, 수한(守閑)이 쓴다.

